

트럼프의 '강한 미국'...대북 강경책 재확인

새해 국정연설 북핵·인권엔 초점
 “북한 핵개발, 우리 본토 곧 위협”
 미국 우선주의 무역·일자리 강조
 섰다운 사태 의식 초당적 협력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쿠바 등과 함께 ‘적’으로 규정하고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속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한 핵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집권 2년 차에도 북한의 숨통을 죄는 압박 작전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최대한 고립시키기 위한 제재의 그물망은 앞으로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생명줄을 바짝 단져, 비핵화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도달 시점이 임박했다고 강조함에 따라 압박 작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다른 옵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행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다짐에서 북한 비핵화 실현 의지는 매우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나는 우리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천착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는 북한 인권과 핵 문제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북한 인권을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하원 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 연두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뒤편은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연합뉴스

고리로 한 대북 압박이 가속화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을 “잔인한 독재정권”이라고 칭한 뒤 “북한만큼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며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살펴보는 것만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가해질 수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은 강한 미국을 건설하고 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수사로 가득 차다.

‘새로운 미국의 시대’, ‘낙관주의의 새로운 물결’, ‘아메리칸 드림’, ‘하나의 미국, 하나의 팀, 하나의

가속’ 등 통합(unity)의 메시지를 발산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다자협정에 대한 불공정을 지적한 대목에서는 “경제적 굴복의 시대가 끝났다”는 한 마디로 미국이 더는 불리한 협정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심이 쏠린 이민정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동원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국정연설 주요내용

- **북한 핵 위협과 인권 문제**
 “어떤 정권도 북한보다 더 안전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탄압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최대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북정책 관박 용어 없고, 최고의 압박작전 통해 핵폭 포기를 끌어내겠다고 풀이)
- **보호무역과 통상정책**
 “미국 우선주의 가치 내건 보호무역주의 기조 재천명”
 우리의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 무역규정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미국과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
- **이민제도 개혁 천명**
 이민개혁안에 대한 의회 통과 촉구
 첫 번째 속 마리트 기반 시스템 (18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대안 제공) 제공
 두 번째 속 마리트 기반(국경을 안전하게 보호)
 세 번째 속 마리트 기반(성과 기반 이민제도 도입)
 네 번째 속 마리트 기반(이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만 가능)
- **대대적 인프라 투자**
 허를어지는 인프라를 재건할 시점.
 현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갈 것(민주·공회) 영등 모두에게 요구.
 새로운 인프라 위해 최소 1.55천억 달러(약 1.66조 원)의 예산 차의 의회 요청
- **일자리·감세 성과**
 대선 이후 2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중, 중산층 연임 최고치.
 미국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개혁을 실행해 냈음.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취임 첫째 달만 규제 완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대상자를 포함해 18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관대하게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관용’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장벽을 건설해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secur), 비자 추첨제와 연쇄 이민을 폐지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쪽에 더 강한 방침을 짰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섰다운 사태를 의식한 듯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열린 손을 활짝 내밀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 /연합뉴스

일본 노골적 독도 왜곡 교육

‘영토’ 고교 필수 과목 신설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 등을 다루는 새로운 과목을 만들고 교육 지침에 ‘영토 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1일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의란 바에 따르면 공공 과목은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여기서 ‘공공적인 공간’은 영토를 뜻한다.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노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영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외에 안전보장문제, 국제공헌에 대한 일본의 역할, 정치 참가 등이 공공과목에서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회계(역사·지리·공민) 과목들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에 충실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종합’과 환경문제 등 지구 규모의 과제를 배우는 ‘지구종합’을 신설한다. /연합뉴스



멜로니 트럼프 31일 중국 우한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그의 남편과 함께 경극 공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바다 얼어붙는 중국 흑한

랴오둥만 1만7천km² 결빙

흑한으로 한반도 부근 중국 랴오둥(遼東)만 일대 1만7088km²가 얼어붙었다.

지난 31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랴오둥 만의 해수 결빙이 확산돼, 중국 국가해양국 북해예보센터가 해당 해역에 남색 경보를 발령중이다. 위성사진 분석결과 현재 랴오둥만 일대의 결빙면적은 1만7088km²로, 랴오둥만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일부 결빙지역 얼음 두께는 40cm 정도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빅터 차, 주한 미대사 낙마...백악관 대북 강경과와 이견

빅터 차(사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의 검증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낙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차 내정자의 낙마로 한미 간 소통의 핵심채널의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우려는 불가피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측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 내정자의 지명검토 철회 소식을 전했으며 백악관도 이러한 보도를 확인했다.

다만 우리 정부 측 관계자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확인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차 내정자가 중도하차 한데에는 대북과 무역 등 한반도 및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내정자가 지난해 12월 하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인 ‘코피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NSC 관계자들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양자 무역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고 ‘협박’을 가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차 내정자의 지인 두 명도 WP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 빚어진 이견이 대사직 지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고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달간 진행해온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됐으며, 이 역시 대사직 부적격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한 관계자가 익명으로 WP에 전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 고위 관계자가 WP에 “적임자를 찾는 대로 빨리 지명하겠다”고 말한 대로 미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후임 물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외교가 내에서는 대안 부재론 등을 들어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우리 정부 측은 이날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하기를 희망하며 그동안 미국 정부 측에 다양한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조속한 부임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 내정자의 낙마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떠난 이후 1년 동안 이어져 온 마크 내포 대사 대리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18. 3. 6.(월) 09:10 (총4주) ·토요일 오전반: 2018. 3. 10.(토) 09:10 (총4주)	·월요일 오전반: 2018. 3. 5.(월) 09:10 (총4주) ·토요일 오전반: 2018. 3. 9.(토) 09:10 (총4주) ·토요일 오후반: 2018. 3. 10.(토) 14:10 (총4주)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건물임대
 | 병원 적합 |

건물명 일신방직 내 건물
 위치 광주 북구 임동 100-64번지(나동)
 대지면적 5,464㎡
 연면적 4,792.83㎡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병원등 용도변경 가능)

층별	면적(㎡/평)
지하	499.1㎡(151평)
1층	655.2㎡(198평)
2층	1,064.2㎡(322평)
3층	1,064.2㎡(322평)
4층	1,064.2㎡(322평)
계	4,346.9㎡(1,315평)

임대료 별도협의(리모델링 비용지원)
 권장업종 병원/학원등
 장 점 도로점(2차선 양방향), 시내중앙, 일신방직 직영임대

임대문의 | **062-510-5120**
 일신방직 관리팀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